

기도

1. 나의 삶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2.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눔

1.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사욕'은 무엇이었습니까?
2. 하나님께 마지못해 순종했다가 결국 그 뜻을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까?

신앙

## 근신

'근신'은 고대의 용례를 보면 문자적으로 술을 금하는 것 뿐 아니라 술 취하지 않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따라서 위엄을 갖추고 절제하는 것을 의미했다.



# 구역 공과

2023년 3월 5일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사야 2장 2-4절)



##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

베드로전서 1장 13-17절 (찬15장, 455장)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 첫 번째로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라는 말씀입니다(13절).

하나님의 자녀는 은혜를 온전히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입니다(13절b). 이 은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 주실 은혜로써 부활과 영생의 은혜입니다(고전15:54). 우리가 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출12:11).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애굽을 떠나라 하실 때 백성들이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영으로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여 영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은혜를 온전히 바라기 위해서는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영은 죄사함을 얻어 구원받았지만 육신에는 아직 죄의 본성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근신하지 않으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악에 넘어지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깨달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지키기 위해 힘쓰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근신하여 깨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 절제하고 근신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들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은혜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으면 온전히 근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실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소망으로 삼고 온전히 바라보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식임을 알라는 말씀입니다(14-17절).

하나님의 자녀는 순종하는 자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이라 말씀했습니다(14절a).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순종은 **첫째, 사욕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14절b)**.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았던 모습입니다(14절b).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었던 모습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성도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세상을 좇아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전의 일을 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문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했습니다(15-16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점점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과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 억지로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은 요단 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엘리사의 말에 마지못해 순종했지만 고침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17절). 이는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마음 중심으로 순종해야 함을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자 천국에 돌아갈 집이 있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부모를 사랑으로 두려워하듯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심판이 두려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에 감사하여 기쁨과 사랑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 맺 음 말

그러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주실 부활과 영생의 은혜를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세상에 마음을 빼가지 않기 위해 근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더이상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전에 살던 모습을 버려야 하고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과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